



어린이 날

어린이를 사랑하고 인격을
존중하기 위해 정한 기념일





어린이날의 의미를 알고 올바른 어린이로 자라납시다.

어린이날이
언제야?



오른손 펴고
왼손을 펴봐!
그럼 5월5일이 되지!



어린이날의 의의를 알아봅시다.

미래의 사회 주인공인 어린이들이 티 없이 맑고 바르며, 슬기롭게 자라날 수 있도록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어린이’란 말은 소파 방정환 선생이 처음으로 생각해 사용하였습니다. ‘어른’에 대한 대칭어로 쓰여 온 ‘아이’라는 말이 어린이를 낮추어 부르는 듯한 어감이 짙게 풍기는 반면 ‘어린이’는 ‘젊은이’, ‘늙은이’와 대칭되는 표현으로 ‘어린 사람’이라는 뜻과 함께 어린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하는 느낌을 줍니다.

지금도 ‘어린이’를 ‘아이’ 또는 ‘애’라고 부르는 분이 계시면 꼭 ‘어린이’라 불러 주십시오.



어린이날
뭘하면 좋을까?



어린이날의 유래와 연혁을 알아봅시다.

• 어린이날 유래를 살펴볼까요?

어린이날은 1919년 3·1 운동 이후 소파 방정환 선생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넣어 주려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데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습니다. 1923년 색동회를 중심으로 방정환 선생 외 8분이 어린이날을 공포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함으로써 비로소 어린이날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5월 5일로 정하였습니다. (1946년 5월 5일 시작)

• 어린이날 연혁을 살펴볼까요?

- 1921.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란 말 처음 사용
- 1923. 5. 1. 소파 방정환 선생을 비롯한 일본 유학생 모임인 '색동회'에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공포
- 1927. 5. 5월 첫째 월요일을 '어린이날'로 변경
- 1937. '어린이날' 기념식 금지
- 1938. 5. '어린이날' 폐지
- 1946. 5. 5. 제24회 어린이날 기념식 거행, 5월 5일 '어린이날'로 결정 (건국준비위원회)
- 1957. 5. 5. '대한민국어린이헌장' 개정 선언
- 1961. 12. 30.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아동 복리법)
- 1973. 3. 30.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
- 1975. 1. 27. '어린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대통령령)
- 1976. 9. 3.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
- 1981. 4. 13.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아동복지법)
- 1982. 5. 15.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재규정

색동회가 어떤 단체인지 살펴봅시다.



색동회가 뭐지?

● 색동회를 살펴볼까요?

‘색동회’는 어린이 문화운동과 인권운동을 전개한 한국 최초의 어린이문화운동단체로 1923년 5월 1일 일본 동경에서 소파 방정환 선생을 중심으로 강영호, 정순철, 진장섭, 손진태, 고한승, 정병기, 조준기 선생이 창립한 단체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창안한 ‘어린이’란 말을 쓰며 ‘어린이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오다가 방정환 선생이 33세에 세상을 떠나자 2대 양헌 조재호 회장, 3대 진장섭 회장, 4대 반달 윤극영 회장, 5대 눈술 정인섭 회장, 6대 청사 조풍연 회장, 7대 글뫼 김수남 회장, 8대 최영일 회장, 9대 배동익 회장, 그리고 현재에는 10대 이상용 회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색동회는 어린이헌장을 선포하고 어린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앞장서며 다양한 동화구연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금까지도 어린이를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 색동회 로고

조재호 색동회창립위원 고안 1923년 5월경

- 심장 : 색동회 동인의 마음 - 정열 (진홍빛)
- 달걀 : 계림의 어린 생명체
- 태극 : 반 연초록빛 - 희망, 이상, 자유, 문화, 평화
- 병아리 : 반 백색(흰빛) - 백의민족의 어린이가 나오면서 부르짖는 모습



새싹회가 어떤 단체인지 살펴봅시다.

● 새싹회를 살펴볼까요?

새싹회는 1956년 아동 문학의 창작과 보급, 그리고 어린이 문화 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윤석중 선생님을 중심으로 창립된 아동 문화 단체입니다.

1957년 방정환 선생님을 기리는 소파상을 제정하였으며, 장한 어머니상을 제정하여 시상하기도 했습니다.

1968년 ‘노래비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경상남도 마산에 이원수 선생님의 <고향의 봄>, 경상북도 경주에 박목월 선생님의 <얼룩송아지>, 경기도 수원에 홍난파 선생님의 <고향의 봄>, 서울에 윤극영 선생님의 <반달>과 윤석중 선생님의 <새나라의 어린이> 등의 시비를 세웠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어린이날과 한글날에 매년 글짓기 큰 잔치행사로 전국어린이 건강글짓기대회, 세종글짓기대회, 해외새싹 글짓기대회 등 글짓기대회를 개최하고, 소파상, 장한 어머니상, 새싹문학상을 시상하며 신작 동요 보급 및 노래비 세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윤석중 문학상 소개

명 칭	윤석중 문학상
목 적	이 상은 윤석중 선생의 문학정신과 어린이 애호정신을 기리고 유능한 아동문학 작가에 대한 시상을 목적으로 한다.
운 영	윤석중 문학상은 새싹회가 주관한다. 새싹회 이사가 운영위원을 겸하며, 이사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
대 상 인	대한민국 국내 아동문학 작가와 해외에서 한글로 아동문학 활동을 하는 교포 및 외국인이 윤석중 문학상의 대상인이 될 수 있으며, 등단연수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대상부문	윤석중 문학상은 아동문학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문학 전 부문을 수상 대상으로 한다. 1. 시 분 야 : 동시, 동요, 동시조 2. 소설분야 : 동화, 아동소설 3. 희곡분야 : 동극, 시나리오 4. 평론분야 : 아동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평론 5. 기 타 : 어린이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학작품
대상작품	윤석중 문학상의 대상작품은 원칙적으로 심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출간된 작품집으로 한다.

어린이날의 관련 인물을 살펴봅시다.



방정환 선생

소년 운동의 주창자이며 아동 문학가로서 유명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1922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여 어린이를 아끼고 사랑해 주자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순수 아동 잡지 <어린이>(1923)를 창간하였고, 아동 문학의 보급과 어린이 보호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마해송 선생

어린이 운동가이자 동화 작가로서 유명한 마해송 선생님은 본명은 상규입니다. 방정환·윤극영 선생님과 함께 색동회 창설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1957년 <어린이 현장>을 기초·발표하고 비(碑)를 세우는 등 어린이 보호 운동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윤석중 선생

아동 문학가 석동(石童) 윤석중 선생님(1911 - 2003)은 일생을 어린이와 함께 하면서 1천여 편 가까운 동요·동시를 썼습니다. 이 가운데 작곡되어 노랫말이 된 것만도 5백여 편이고, 국어교과서와 노래책에 실린 작품들이 8백 70편이나 됩니다.



이원수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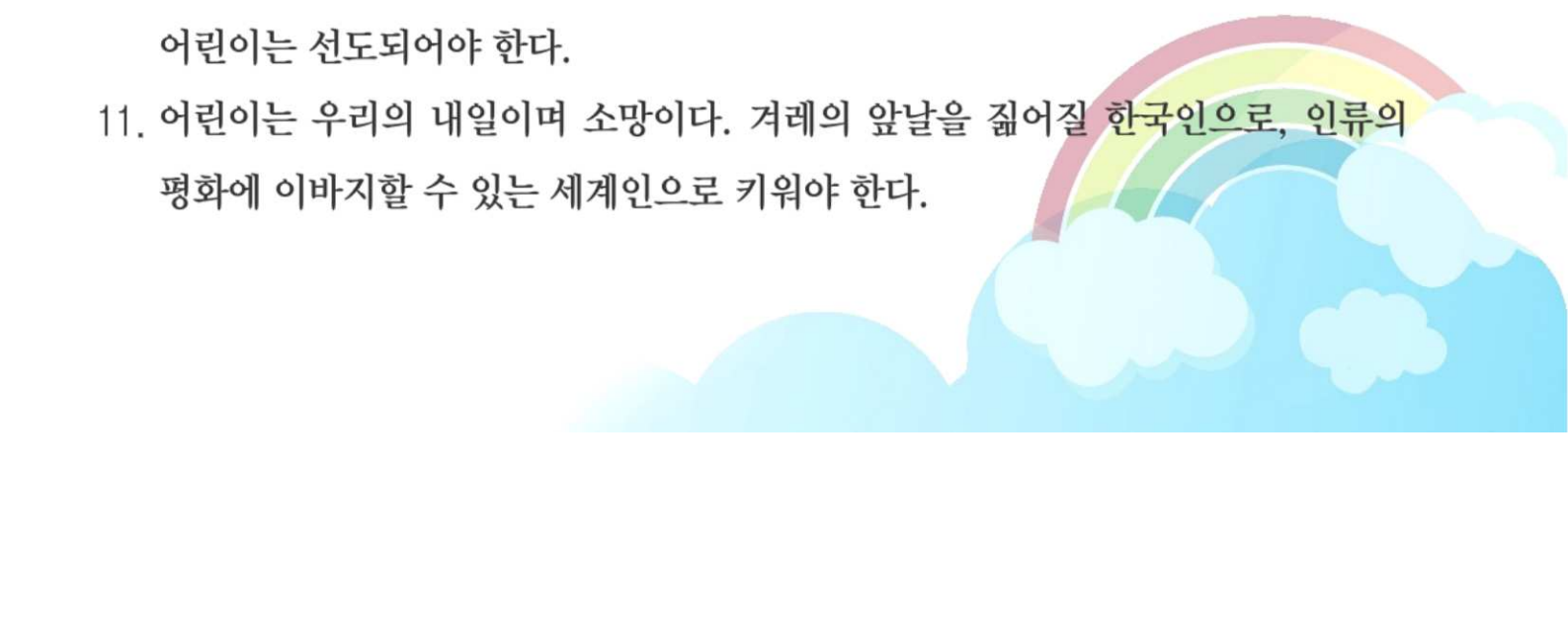
아동 문학가 동원(冬原) 이원수 선생님(1911 -1981)은 한국 어린이 문학의 거장으로서 수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던 13세 때 동요 '고향의 봄'이 <어린이>라는 아동 잡지에 당선되었는데, 흥난파 선생님의 의해 작곡되어 오늘날에도 널리 애창되고 있습니다.



강소천 선생

강소천 선생님(1915-1963)은 한평생을 동시와 동요, 동화를 써 온 아동 문학가입니다. 또한 어린이 현장을 만들어 반포하게 하였습니다.

어린이 헌장

1. 어린이는 건전하게 태어나 따뜻한 가정에서 사랑 속에 자라야 하며, 가정이 없는 어린이에게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알맞은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2. 어린이는 몸과 마음이 튼튼하게 자라도록 균형 있는 영양을 취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받으며 공해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살아야 한다.
 3. 어린이는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어린이를 위한 좋은 교육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어린이는 빛나는 우리 문화를 이어받아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키도록 이 끌어야 한다.
 5. 어린이는 즐겁고 유익한 놀이와 오락을 위한 시설과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
 6. 어린이는 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서로 돕고 스스로 책임을 다하는 민주 시민으로 길러야 한다.
 7. 어린이는 자연과 예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탐구하는 마음과 태도를 길러야 한다.
 8. 어린이는 위협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도를 받아야 한다.
 9. 어린이는 학대를 받거나 버림을 당해서는 안 되고, 나쁜 일과 짐이 되는 노동에 이용되지 말아야 하며, 해로운 사회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10. 몸이나 마음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는 필요한 교육과 치료를 받아야하고, 빛나간 어린이는 선도되어야 한다.
 11. 어린이는 우리의 내일이며 소망이다. 겨레의 앞날을 짊어질 한국인으로, 인류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인으로 키워야 한다.
- 

 어린이날 노래를 불러봅시다.

어린이날 노래

윤석중 작사/윤극영 작곡



날아라 새들아 - 푸 른 하 - 늘 - 을



달려라 냇물아 - 푸 른 별 - 판 - 을



오 월은 푸르 구 나 - 우리들은 자 란 - 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 리 들 - 세 - 상



어린이날 관련된 사진을 살펴봅시다.

- 어린이날 관련된 사진을 살펴볼까요?



어린이 잡지



어린이
운동 발생지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



어린이날
행사



김천시
어린이날 행사

삼성라이온즈
어린이날 행사



윤석중
문학상



